

# 선원·해운업계·지역사회 경제지원,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류지훈 · 김우정(komares@chol.com)

코로나19의 감염확산으로 정부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해운관계기관들이 침체되어 있는 해운업 경기와 지역사회 경제를 살리기 위해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지역화훼농가 지원, 해운업 경제지원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에게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하여 단기 유동성 확보에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온라인 비대면 방식을 채택하여 해양수산 정책방향을 논의하여 코로나19 극복방안과 분야별 대응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극지연구소에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외부 접촉을 전면 통제하고 파푸아뉴기니에 고립되어 있던 원양어선원 25명의 귀국을 지원하며, 국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극지연구소 대원과 해외선원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해운 유관기관들의 노력도 눈에 띈다. 먼저 항만운영주체인 4대 항만공사(PA)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부산항만공사(BPA)는 2월 25일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비상대책본부’에서 4월 1일부터 ‘전사적위기관리체제(ERM)’로 전환하며 코로나19에 대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부산항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크루즈선 ‘퀸텀오브시즈호’에 대해 선원하선을 금지하고 급유 및 선용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될 수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비대면 접촉 방식을 통해 다양

한 소통방식으로 전환하여 사업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여수광양항만공사(YGP A)는 지역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나누기 행사를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울산항만공사(UPA)는 사회공헌재원 1억 2,100만원을 조기 투입하고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동반성장물 복지포인트 지원사업’도 실시했다.

한국선급(KR)과 KOMSA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KR은 화상회의를 통해 국내외 주요 지부의 검사현장과 고객 서비스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KOMSA는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수산과 중소형 조선분야의 경영 위기극복 및 정부 재정 조기집행정책에 적극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 보증료를 지원하기 위해 추경예산 9억원을 긴급편성했다.

## 해사기관의 노력1 - 선원 지원 및 지역사회 공헌 (정부) 해수부, IMO에 국제해운활동 보장 대책 마련 촉구 서한 보내

해양수산부가 4월 6일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MO) 임기택 사무총장에게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국제해운이 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IMO가 다른 유엔기구들과 협력하여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최근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과 세계보건기구(WHO)의 '팬데믹' 선언으로 세계 각국에서 외국 선박의 입항과 출항, 선박검사, 선원교대 등 선박 운항에 필수적인 활동들을 제한함에 따라 우리 국적선을 포함한 많은 국제항해 선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IMO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선박 검사증서의 연장 등 국제협약의 실용적인 운용을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지속적인 국제해운 기능 유지와 국제무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보장 등 범 UN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ILO, 코로나19 관련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 촉구 공동성명서 발표, 선원들의 이동 자유, 선용품 공급 등 권리 보장 필요성 적시**

국제노동기구(ILO)가 3월 31일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 명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하여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는 ILO 내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노·사·정 협의체로서, 정부, 선주단체, 선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한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핵심근로자(Key workers)인 선원에 대한 이동 제한을 면제하여 원활한 교대 및 송환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의료물자, 연료, 식량 등 선용품이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협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계약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승선기한이 지났어도 합리적으로 연장 승선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국(선박이 등록된 소속국가)과 항만당국은 선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회원국과 항만당국은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3월 17일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 **해수부, 남·북극 과학기지에 코로나19 유입 방지 과학기지 외부 접촉 통제 및 연구일정 조율, 극지활동 국가 간 긴밀 협력 유지**



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가 극지에 코로나19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 접촉을 전면 통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해수부와 극지연구소는 3월부터 남극 세종과학기지와 장보고과학기지에 모든 외부인의 방문을 통제하고, 주변 기지와외의 접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또한 방역복, 마스크, 소독제와 같은 방역용품을 충분히 구비하여 감염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세종과학기지의 경우 기지 관문도시인 칠레 폰타아레나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4월 예정이던 보급 일정을 9월 이후로 연기하였다. 장보고과학기지에는 쇠빙연구선 아라온호가 뉴질랜드를 거쳐 보급 활동을 왔으나, 혹시 모를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기지 대원과 아라온호 승무원 간 물리적 접촉 없이 화물 하역작업을 실시한 바 있다. 아라온호에서는 지난 2월

에 예정되었던 연구원 및 승무원의 교대 승선이 취소되면서 기존 승선인원이 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또한 아라온호는 기항 중 감염을 막기 위해 4월 9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계획되었던 뉴질랜드 정박을 4월 9일에서 10일, 이틀에 마치고 우리나라로 귀환 중이다.

노르웨이령 스발바르 군도에 위치한 북극 다산과학기지도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하계연구활동을 전면 중단하였고, 상황의 추이를 지켜보며 하반기 연구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 해수부-외교부, 해외 고립 원양어선원 긴급귀국 지원

해양수산부와 외교부가 쇄빙연구선 아라온호가 4월 20일 08시경(한국시간)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라바올항에 입항하여 선박 침몰로 PNG에 고립되어 있던 원양어선원 25명의 귀국을 지원했다.

한성기업 소속 원양어선 ‘림 디스커버러호’는 지난 3월 21일 PNG 해상에서 암초와 충돌하여 침몰했다. 선원들은 침몰 당시 구명보트에 전원 탑승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필리핀 선박에 의해 구조되어 3월 23일 PNG 라바올항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PNG의 공항·항만 폐쇄, 국경봉쇄 및 이동금지 조치로 인해 선원들은 바로 귀국하지 못한 채 항만 인근 호텔로 이동한 후 지금까지 격리되어 있는 상태였다.

해수부는 침몰사고 어선원의 정신적·육체적 안정을 위해서는 내·외국인 선원을 불문하고 긴급 귀국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다. 때마침 남극 연구항해를 마치고 국내로 돌아올 예정이었던 해수부 산하 극지연구소의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즉시 외교부 및 법무부와의 공조를 추진했다.

먼저 외교부 주 PNG한국대사관은 PNG 정부의 항만 폐쇄 및 이동금지 조치상황에서 예외적으로 아라온호의 특별 입항 허가를 받아냈다. 선박 침몰사고로 인해 선원들이 여권·비자 등이 모두 소실되었음을 감안하여, PNG 현지 각국 대사관에서는 발급받은 여행증명서로 여

권을 갈음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법무부는 14명의 외국인 선원들이 국내 입국 비자를 발급받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국내 입국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아라온호를 통한 귀국과정에서의 방역 조치도 철저히 진행된다. 모든 선원들은 PNG 현지에서 발열검사 등을 통해 증상유무를 확인한 후 아라온호로 이동하고, 승선 직후에도 발열을 체크한다.

이후 지난 3월 12일에 수립한 ‘아라온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아라온호 승선원과 원양어선원의 생활공간, 식사 공간 및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고, 선박 내 공기순환장치를 차단하여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을 막도록 하였다. 아울러 원양어선원 전원에게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급하여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귀국 후 2주간은 자가격리조치 할 예정이다.

### (기관) BPA, 4월 1일부 코로나19 ‘전사적위기관리 체제’로 전환

부산항만공사(BPA)가 그간 부산항 코로나19 감염차단 및 업계지원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코로나19가 초래할 수 있는 상황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4월 1일부로 전사적위기관리체제(ERM)로 전환했다.

지난 1월 20일 주의단계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상황반’을 1월 27일 경계단계에서는 ‘코로나19 비상대책반’으로, 2월 25일 심각단계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비상대책본부’로 확대·개편해 온 비상경영체제는 주로 부산항 코로나19 감염차단 및 업계지원에 집중해 왔다.

이번에 남기찬 BPA 사장을 단장으로 한 ‘코로나19 전사적위기관리체제’는 향후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제물류체제의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부산항의 지속가능한 성장 점검 및 경영자원의 조정에 중점을 둔 것이다.

부산항의 지속가능한 성장 점검 및 경영자원의 조정,

위기 예상 시나리오 수립 등 전사적 위험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에 들어간 ‘코로나19 전사적위기관리체제’는 △정부정책의 적극 이행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추진, 재정집행에 동참한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 △부산항의 경쟁력 저하 방지 및 항만시설의 차질 없는 개발 및 운영 △국내외 수출입화물의 신속·정확·안전한 하역, 글로벌 환적물류네트워크 점검 강화, 국내외 선사들의 경영전략 및 동향 실시간 파악, 부산항 모든 산업현장에서 코로나19 예방 철저 및 부산항의 차질 없는 운영 △사업과 예산의 우선순위 조정 및 비상자금 확보 △불요불급한 예산 지양, 사업 속도조절, 비용절감 등을 통해 지출예산(약 1조 50억원)의 약 10% 정도(800~1,000억원)를 조정하여 비상자금 확보 등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할 방침이다.

3월 19일 개최된 제222회 항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위기관리대책’에 맞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해운항만업계를 지원하는 ‘약 187억원 규모의 임대료·사용료 감면 등 추진계획’을 의결하여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최근 전문가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도 3월 27일 공공기관장과의 영상회의에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신속히 추진하고 사태 장기화에 대비할 것을 강조한 만큼 BPA도 부산항의 코로나19 대응체계를 전사적위기관리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 국제사회, BPA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모범 사례’ 평가

부산항을 관리·운영하는 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으로 모범적인 글로벌 대처능력을 보여줬다는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고 있다.

4월 22일 BPA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즉각 부산항의 비상계획을 수립해 운영하는 한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항만들이 연대가 필수적이라는 인식 아래 비상계획 공유에 나섰다. BPA는 3월 중순, 부산항의 비

상계획을 미국, 함부르크, 카타르, 싱가포르, 파나마, 모로코 등 자매항만 및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 국제부흥개발은행(Worldbank),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 공유하며 부산항의 우수 대처사례 및 노하우를 신속하게 전파했다.

BPA의 비상계획은 조직운영, 부산항 화물 및 여객 운영 파트로 작성되었고 조직운영 측면은 직원들의 감염으로 인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제2의 사무실(2<sup>nd</sup> Office) 운영(직원 30% 타 공간배치) △구내식당 이용 지침 등을 담고 있다. BPA는 부산항의 비상계획과 더불어 외교부(기재부)에서 작성한 한국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우수사례도 함께 국제사회에 전파하여 부산항은 물론 나아가 한국정부의 뛰어난 위기관리능력과 실행력을 소개했다.

이에 대해 UNCTAD 얀 포프만(Jan Hoffman) 선임 행정관은 “BPA의 이러한 대응은 아주 훌륭한 선제조치였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은 사례를 국제기구 관계자 및 세계 항만들에 적극 알리겠다”고 화답했다. 이와 함께 BPA는 국제항만협회(IAPH) 산하 코로나19 T/F에 참여해 주 1회 개최하는 화상회의를 통해 런던, 브라질 아수, 앤트워프, 광저우 등 10개 항만 관계자들에게 부산항 운영현황을 공유하고 다른 항만들의 우수사례 등에 대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있다.

또한 BPA는 싱가포르, 바르셀로나 등 19개 회원 항만과 함께 국제항만공사 자문기구인 항만공사라운드테이블(PAR)의 ‘코로나19 공동선언’에 참여하여 글로벌 공급사슬과 무역, 항만 운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데 뜻을 모았다. BPA와 회원 항만들은 이번 공동선언문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여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바이러스로부터 글로벌 해운네트워크를 보호하도록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 YGPA, 코로나19 극복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 동참

차민식 여수광양항만공사(YGPA) 사장이 4월 22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캠페인’ 릴레이에 동참해 국

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캠페인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펼쳐지고 있는 지목형 캠페인이다.

김성희 광양시의회 의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차 사장은 직접 쓴 응원문구 '#힘내라 대한민국, #힘내라 지역경제, #힘내라 우리바다'를 공사 SNS에 게시했다.

공사는 다음 캠페인 참여기관으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광양소방서, 자회사인 여수광양항만관리(주)를 지명해 릴레이를 이어간다.

한편 YGPA는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해 지역 농특산품 우선 구매, 사회적 약자 기금 출연 및 항만 연관산업체 임대료 감면, 방역물품 구매·배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적 재난 사태 극복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 해양박물관, 온라인 미디어 채널서 다양한 해양문화·교육콘텐츠 공개

국립해양박물관이 박물관의 전시를 온라인으로 즐길 수 있는 온라인 뮤지엄을 박물관 홈페이지 팝업 및 유튜브 등에 공개한다.

이번 온라인 뮤지엄은 코로나19 재난 위기경보 '심각' 격상과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박물관 임시휴관을 시행하고 있어 박물관을 직접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집에서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온라인 뮤지엄은 '온라인 뮤지엄 클릭!'이라는 제목으로 상설전시실 및 박물관 소장 자료의 특성을 소개한다. 이번에 소개되는 영상은 상설전시실 I 해양역사영역의 '조선통신사선' 편이다.

영상 속에서는 해양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근강명소도회' 내 정사선 모습을 토대로 실제 대비 1/2 크기로 재현한 조선통신사선의 모습을 현장에서 설명한다. 아울러 약 200년 동안 우리나라와 일본의 평화유지와 문화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던 조선통신사의 활동에 대해서도 쉽고 재미있게 소개한다.

또한 박물관 홈페이지에서는 '온라인 교육자료실'을 통해 AR을 이용한 교육 자료와 활동학습지 등 총 8개의 해양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가장 최근에 공개한 해양교육 콘텐츠는 'AR국립해양박물관' 어플이다. 홈페이지 내 교육 자료에서 다운받은 '키즈시네마(AR)' 이미지를 인식하면 다양한 미니게임과 바다 생물과 등대에 관한 이야기를 즐길 수 있다.

### 선원노련, "코로나19 감염원 조합원 1명도 없어" 선원용 마스크 37만 4,000장 제공



선원노련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조합 및 내외국인 선원을 위해 마스크 10만장을 직접 구매하여 4월 16일부터 해당 선사에서 제출한 선원명부를 근거로 선원 1인당 7장씩 무료로 나눠줬다.

또한 선원노련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공적마스크'를 요청한 결과 20만장을 받았다. 그간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는 정부가 해외배송을 막고 있었으나, 선원노련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 선원용품에 한해서 수량 제한을 풀기로 하였다.

제공받은 공적마스크의 배분은 선사 단체별로 진행되며, 외항상선에는 한국선주협회가 14만장을, 원양어선에는 한국원양산업협회가 3만장, 해외취업선원에게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3만장 등 마스크를 나눠 배송됐다.

이에 앞서 3월 선원노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마스크 4천장을 지원받아 가맹조합에 전달한 바 있다.

현재까지 선원노련은 직접 구입한 10만장, 정부 제공 20만 4,000장 한국선주협회 구입 7만장 등 총 37만 4,000장을 확보해 선원들에게 제공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2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도 선원노련 산하 해운과 수산조직의 감염자는 단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선원노련은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일 먼저 책임지고 챙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마스크 수급과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태순 한국선주협회 회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선원의 건강과 해운수산업을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해사기관의 노력2 -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정부) 해수부, 코로나19 대응 해양수산 정책방향

영상논의, 논의된 제안내용 코로나19  
대응전략에 반영, 해양 전문가  
“장기 불황 최악의 시나리오 대비해야”

해양수산부가 4월 8일 문성혁 장관 주재로 미래연구, 해운, 항만, 수산, 해양관광 등 분야 전문가 6명의 해양수산분야 전문가들과 영상토론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에 따른 해양수산분야 영향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금융과 실물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L자형 또는 U자형 장기 불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도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온라인 등 비대면(Untact) 활동 확대, 스마트·디지털 경제로의 조기 전환 등과 같이 코로나19를 계기로 국민들의 생활과 소비행태 전반이 변화하고 있어 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해양수산 분야가 코로나19를 극복하



고, 그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별 대응전략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먼저 해운물류분야에서 관련 업계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자율운항선박 개발, 해운물류 플랫폼 비즈니스 창출, 항만배후단지를 활용한 신산업 육성(인천항 전자상거래 클러스터 등)과 같이 미래 해운 산업 및 연관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항만분야에서는 침체에 빠진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구축 등을 통한 경기부양이 시급하다는 측면에서 부산 제2신항 개발과 같은 항만인프라 개발 사업을 조기 추진하고, 광양항 자동화와 같이 어떠한 재난에도 관계없이 항상 개발·운영이 가능한 스마트 항만 조성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수산분야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유통시스템이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므로, 수산식품 온라인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 플랫폼 육성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간편식·기능식과 같은 맞춤형 수산식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해양관광분야에서는 국내 관광 활성화와 해외 관광객 유치의 회복에 시간차가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해양치유·생태관광 등과 같은 국내관광에 초점을 맞추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전한 국가라는 신뢰 형성, 해양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해수부는 전문가들의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코

코로나19 대응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며, 도출된 핵심과제가 2021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기관) 부산항, 크루즈선 1척 급유 및 선용품을 비대면 방식으로 공급



부산항만공사(BPA)가 부산항 입항을 요청한 크루즈선 '퀸텀오브시즈호(16만 7,000톤급)'에 대해서 급유 및 선용품을 공급했다.

다만 승무원들의 하선을 일체 불허하고 급유와 승무원들이 선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공급에 있어서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여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이번 조치는 해양수산부, 부산시, 국립부산검역소 등 CIQ 기관들과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되었다. 이번 부산항 입항이 허용된 '퀸텀오브시즈호'는 3월 22일 싱가포르항에서 선용품을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월 3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 접안하여 관련 물품을 공급받고 당일 출항했다.

아울러 BPA는 입항이 허용된 '퀸텀오브시즈호'에 대해서도 부산항 진입 전 유증상자 발생 시에는 입항을 거부할 예정이며, 입항 후에도 선원의 건강상태를 검역당국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BPA는 크루즈선의 부산항 입항기간 중에는 부산지방 해양수산청, 부산시 및 검역당국 등 관계기관과의 비상대응체계를 강화하여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만전을

을 기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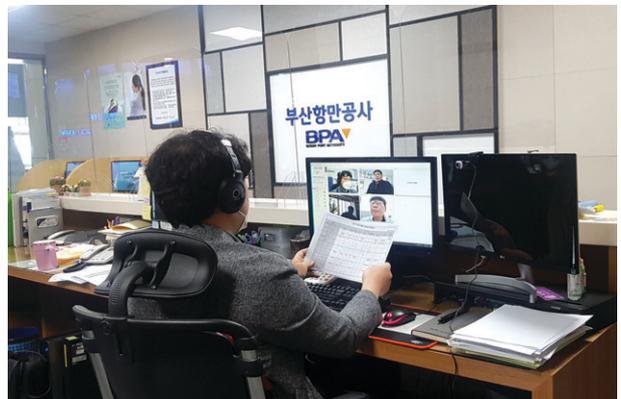
한편 부산항 입항을 함께 요청한 '네오르만티카호'(5만 7,000톤급)는 선박의 운항항로와 선용품 잔여여건 등을 감안하여 입항을 하지 않기로 선사에서 결정하였다.

### BPA, 부산항 '온라인 선석회의' 5월까지 연장·시행

부산항만공사(BPA)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행해 온 온라인 선석회의(화상회의)를 5월까지 연장하여 시행한다.

부산항(북항) 선석회의는 부산항의 선석과 정박지 사용에 대한 순서와 방법을 사용자들이 협의하여 정하는 '항만운영정보교환회의'로 항만시설사용자, 항만하역사업자, 출잡이업체, 선사, 대리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매일 오후 2시, BPA 고객센터센터에서 개최하는 선석회의에 참석해 왔다.

그간 BPA는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지난 2월 26일부터 부산항(북항) 선석회의를 온라인으로 전환·시행하였고,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5월 5일까지) 연장된 점을 반영하여 온라인 선석회의(화상회의)를 5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앞서 BPA는 2004년 창립 이후 줄곧 시행해 온 기존의 선석회의를 시대변화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연초 2회에 걸쳐 참석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조사하였으며, 온라인 회의 개최에 대한 수요를 BPA소통협업 앱(app) 시스템에 적극 반영하여 시



행해 왔다.

현재 선석회의는 매일 오후 2시 온라인(화상회의)으로 진행되며 항만이용자 간의 의견 교환과 자율적 협의를 거쳐 선석의 사용 순서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BPA 소통협업' 앱(app)과 BPA 인터넷 사이트(<https://sns.bpa-net.com>)를 통해 공유한다.

**KR, 화상회의로 국내외 주요 검사현장 점검  
중국, 일본, 아태지역본부 등 참여...  
고객 서비스 차질 예방 총력**



한국선급(KR)이 4월 2일 KR 부산본부에서 국내외 주요 지부의 검사현장과 고객 서비스 대응현황을 점검하기 위한 원격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화상회의는 본부의 임직원과 주요 국내외 지부장이 부산본부에 모여 임원진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한 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전략회의를 대체하여 진행한 것으로, 올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검사 등 대고객 서비스 차질을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이형철 KR 회장은 본부 임직원, 중국·일본·아태지역 등 주요 국내외지부의 지부장들과 화상회의를 통해 본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상황을 전달하고 각 지부의 검사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어 KR 등록선이 검사와 인증심사를 받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

례가 없도록 검사현장에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원활한 선박 검사서비스를 위해 △현지 승선검사 전 선원의 코로나 감염여부 파악 △해외지부 검사원 마스크 지원 등 선박 검사원들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조치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선박 검사원에 비접촉 체온계도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KR은 선박 검사업무의 특성 상 전 세계 주요항만과 도시에 검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6개의 검사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각국에 파견된 선박 검사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선박 검사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 3월 25일 해양수산부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 선박검사 및 인증심사를 한시적 허용함에 따라 그동안 KR이 준비해온 원격검사 기술을 활용하여 일선에서 고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부방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IPA, 비대면 접촉 방식 최대 활용해 2020 사업 활성화 시동, 배후단지 투자유치, 마케팅 등 패러다임 전환으로 침체경기 회복 모색**

인천항만공사(IPA)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자칫 침체할 수 있는 각종 마케팅, 투자유치 활동 등을 비대면 접촉을 통한 다양한 소통방식으로 전환하여 주요 사업 활성화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국가 간 교역 위축과 물동량 감소 등으로 단기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인천지역 및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공사가 연초에 의욕적으로 추진하고자 계획을 세운 역점사업에 대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추진됐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3월 중 개최 예정이었던 '2020 인천항배후단지 투자 설명회'는 오프라인 행사는 연기하되, SNS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에 선별적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IPA는 '2020년 인천항배후단지 투자 및 입주기업 모집 설명

회'를 유튜브 및 페이스북 등 온라인 방식을 활용하여 각 기업 관계자에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질의응답을 실시간 채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9년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당시 80여개사 150여명의 관계자가 참여한 높은 관심을 온라인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IPA는 올해 4월 계획된 인천항 미주항로(PS8) 재편과 관련하여 화주들의 이용에 빈틈이 없도록 '미주 현지 화주 대상 인천항 설명회' 행사를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마케팅으로 전환할 것이며, 다양한 SNS채널을 통해 인천항 이용 장점, 인센티브 제도, 인천항 이용 선사 및 인천-미주간 교역 물동량 분석 등 다양한 내용의 동영상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홍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배후단지 및 마케팅 홍보설명회 콘텐츠를 공사가 운영하는 각종 SNS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며, 쌍방향 소통방식을 활용하여 고객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IPA는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개별적인 오프라인 사업설명회 및 현지 마케팅 활동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 KOMSA, 영상회의 통한 예산 분석·점검회의 진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하는 수산·중소형 조선분야의 경영위기극복 및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정책 적극 참여를 위한 '재정분석 점

검회의'를 개최했다.

비대면 영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이번 점검회의에서 KOMSA는 정부의 경제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해양안전관리 지킴이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선박(어선) 안전물품 지원 등 해양안전확보 관련 사업의 상반기 추진 현황 등을 논의했다.

또한 연안여객선 부담금 납부 연기에 따른 재정분석,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 지양,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점검했다.

### KOEM, 1분기 경영전략 '비대면 영상회의' 개최



해양환경공단(KOEM)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방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1분기 경영전략회의를 3월 31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분기 주요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소속기관별 현안 사항을 공유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지침을 공유하고, 코로나19 감염증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소속기관별 대응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경제적 위기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신속한 사업추진과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어려운 양식수산업계 지원을 위해 해수부가 해양수산 관련 기관들과 추진하고 있는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운

동에도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해사기관의 노력3 - 임직원 급여 반납

#### BPA 임원, 코로나19 극복 위해 급여 30% 반납

부산항만공사(BPA)가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하고자 남기찬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의 4개월간 급여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코로나 위기 극복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남기찬 사장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회적 고통 분담 및 취약계층 지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급여 반납을 결정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최근 급격한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BPA는 노·사가 합심하여 전 임직원이 수산물 구매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등 소비촉진에도 앞장서고 있다.

한편 그간 BPA는 해운항만업계의 임대료 187억원 감면, 부산항 근로자 마스크 지원, 지역사회 취약계층 후원금 기부, 지역화훼농가 돕기 등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선제적으로 해왔다는 점에서 관련 업계 및 지역사회로부터 좋은 귀감이 되고 있다.

#### UPA, 임원진 4개월간 급여반납운동 동참

울산항만공사(UPA)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고자 전 임원의 급여 일부를 반납한다.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 장관 주제로 열린 ‘해양수산 공공기관장 영상회의’에서 급여반납운동이 언급되었고 회의에 참석한 산하 공공기관장들은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상환 UPA 사장과 임원진은 향후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하였다. 반납된 재원은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 해사기관의 노력4 - 경제적 지원

#### (정부)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한시적 납부유예 추진, 4월부터 최대 90일간 유예, 연안 여객선사 유동성 확보 기대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 여객선사에 대해 4월부터 최대 90일간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유예한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2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두 달간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40% 감소한 약 100만명 수준에 그쳤으며, 이에 비례하여 여객선사의 매출액도 절반가량 크게 줄었다.

이에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사업 조기 집행 △연안여객터미널 임대사용료 감면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전산매표수수료 감면 등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연안여객선 운항관리 비용부담금 납부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업계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란, 영세한 연안여객사업자별로 독자적인 운항관리체제를 갖추기 어려움에 따라 KOMSA에 공동운항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운항관리자를 두고 그에 대한 소요비용 일부를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서, 2019년부터는 연안여객사업자가 받는 여객운임액의 2.9%를 부담금으로 징수해 왔다.

지난해(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납부된 운항관리 비용부담금이 총 17억원 규모인 것을 고려하면, 이번 납부유예 조치가 연안여객 선사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 코로나19 극복 위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확대

경기도가 올해(2020년) 1회 추경에 9억원을 긴급 편성, 총 13억 5,000만원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수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한다.

3월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으로 많은 도내 수출기업들이 계약파기나 수출

대금 미회수, 긴급 운영자금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2월 27일부터 3월 12일까지 도내 수출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기업의 80%가 자금운영과 관련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에 도는 수출기업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020년도 경기 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으며, 기존 사업비 4억 5,000만원 보다 9억원을 더 증액해서 운영하게 됐다.

'경기 안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은 도내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보험(보증)료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손실액을 보장받게 도와주는 사업이다. 지원종목은 단기보험, 중소기업 PLUS 보험, 단체보험, 선적 전 수출보증, 선적후 수출보증, 환변동보험 등 6가지로 이뤄져 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지원 한도를 기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우대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0개사를 대상으로 수출 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발생 시 최대 5만달러 한도 내에서 손실액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피해 사실 확인은 작년과 올해 같은 분기 매출액(또는 수출액)의 감소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련 수출실적증명서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사업대상자는 본점을 포함한 사업장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전년도 수출실적 2,000만달러 이하인 업체다. 단, 단체보험은 3,000만달러 이하, 선적 전 보증은 500만달러 이하 기업이어야 한다.

사업 지원은 자금 소진 시 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자세한 문의는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031-259-7609)로 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최근 3년(2017~2019년) 동안 총 4,896개사를 대상으로 약 15억원의 수출기업 보험 및 보증료

를 지원했으며, 해당기간동안 총 140개사가 약 147억원의 사고 보험금을 받은 바 있다.

### (기관) UPA, 지역 중소기업 판로 지원 MOU 체결

울산항만공사(UPA)가 중소기업유통센터,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3월 25일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동반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동반성장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강화에 목적이 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동반성장몰을 도입하여 △중소기업 판로 지원 △중소협력기업에 복지포인트 제공 △우수 중소기업 동반성장몰 입점 지원 등이다.

특히 유통 및 판로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중소기업유통센터와의 협력하여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확보, 울산항 중소협력기업의 고용안정 지원에도 기여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동반성장몰은 동반성장유통센터가 운영하는 우수 중소기업 제품만으로 구성된 온라인 쇼핑몰로, 입점 중소기업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채널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 고객은 우수한 품질의 중소기업 상품을 한 곳에서 확인·구매가 가능한 유통 플랫폼이다.

### UPA, 협력기업 근로자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울산항만공사(UPA)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UPA 중소협력기업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동반성장몰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동반성장몰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UPA의 중소협력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20만원씩 100명에게 동반성장몰에서 사용 가능한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동반성장몰은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로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한 생필품 및 식료품 등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수여대상은 재직 중인 중소기업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8만 8,344원 이하 또는 최근 3개월 평균 기준 중위 소득 150% 이하로 진행됐다.

UPA는 이번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으로 울산항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더불어 중소기업의 매출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했다.



**(주)KSS해운, ‘코로나19 확산방지’ 후원금 기탁**

(주)KSS해운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방지 및 범사회적 총력 대응 노력에 일조하기 위하여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후원금 2,100만원을 기탁했다.

후원금은 회사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조성되었으며, 소득·검사·치료·긴급생계지원 등 필요한 곳에 사용됐다.

한편 (주)KSS해운은 지난 1997년부터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급여의 일정금액을 도움이 필요한 단체에 꾸준히 기부해오고 있으며, 해양계 학생 장학금 지원, 지역 환경정화활동, 소아암 환우 돕기 행사지원, 김장나누기 행사 등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참여와 매칭그랜트(Matching Grant) 방식의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오고 있다.

**UPA, 지역사회 공헌 1억 2,100만원 조기 투입**

울산항만공사(UPA)가 4월 20일 코로나19 여파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 재원 1억 2,100만원을 조기 투입하였다. 이는 UPA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사회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사업 조기 실행 계획’의 일환으로, 4월 내 투입 가능한 사회공헌예산의 91% 집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는 것을 목표로 한다.

UPA는 공공부문 수산물 구매 캠페인, 상품권 발행 확대 등 정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에 호응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지원방안 △지역 중소 수산·양식업계 수산물 구매 △소상공인 살리기 온누리상품권·울산페이 구매 △지역 전문예술단체 메세나 후원금 조기 집행 △장애인 해양스포츠 단체 후원금 지급을 선정하여 실행했다.

먼저 UPA는 3,600만원 상당의 제철 수산물을 구매하여 최근 소비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어촌계 및 수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였다. 이는 수산물 나눔 캠페인 ‘봄 해물, 벚꽃 말고 ♪’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인 취약계층 927명에게 전달됐다.

또한 ‘소상공인 살리기 온누리상품권·울산페이 구매’를 위해 예산 1,500만원을 들여 온누리상품권과 울산페이를 지역 내 한부모 가정 100가구, 장애아동 거주시설에 가족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단기간 내 전통시장 등 지역 소상공인 상품 구매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 취소, 연기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전문예술단체(처용국악관현악단)를 돕고자 ‘지역 전문예술단체 메세나 후원금 조기 집행’을 추진하여 메세나 후원금 1,000만원을 조기 집행했다. ‘메세나’는 기업들이 문화예술에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 공헌과 국가 경쟁력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총칭한다.

이어 도쿄 패럴림픽 연기로 금전·심리적 피해를 입은 장애인 스포츠 선수 지원을 위해 장애인 해양스포츠 단체 후원금을 지급했다. UPA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산하연

## 긴급이슈 해사기관들의 코로나19 대응 이모저모

선원 · 해운업계 · 지역사회 경제지원,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맹에 후원금 6,000만원을 전달하였으며, 이는 파라카누, 요트, 조정 선수들의 생활안정 및 훈련 여건 개선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UPA는 △항만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지원(약 7억 7,000만원) △중소기업 지원 상생펀드 확대(30억→60억) △울산항 협력기업 대상 동반성장 지원(약 1억 5,000만원) 등 코로나19 피해 고통분담을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 해사기관의 노력5 - 지역 화훼농가 지원

#### YGPA, 지역 화훼농가 돕기 나서

여수광양항만공사(YGPA)가 4월 1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꽃 나누기 행사를 펼쳐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에 나섰다.

이번 꽃 나누기 행사는 졸업식, 입학식 등 주요행사가 취소되면서 매출이 급감한 화훼 농가의 판로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사무실마다 '테이블 1화병'을 비치하여 코로나19로 인해 지친 직원들에게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에게도 봄꽃의 향기를 전하기 위해 화훼 기증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직원들도 지인과 가족들에게 봄꽃 내음을 선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즐거운 마음을 적극 동참했다.

한편 공사는 전통시장 장보기, 사랑나눔 헌혈, 양식수산물 소비촉진 및 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 추진 등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묵묵히 지원을 이어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화훼농가 돕기 '플라워 버킷 챌린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플라워 버킷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플라워 버킷 챌린지는 졸업식, 입학식 등 각종 행사가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



해 진행되는 캠페인으로, 꽃바구니를 받은 사람이 다음 대상자를 지목하고 꽃바구니를 직접 구매해 전달하는 방식이다.

연수원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꽃바구니를 전달받았으며, 다음 참가자로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지목하고 꽃바구니를 구매해 전달한다.

#### BPA 남기찬 사장, '플라워 버킷 챌린지' 동참



부산항만공사(BPA)가 최근 꽃 소비가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화훼농가를 돕기 위해 '사내 꽃 소비 운동'을 펼친데 이어 '플라워 버킷 챌린지'에도 동참했다.

3월 31일 BPA에 따르면, 이날 남기찬 사장은 해양환경공단 박승기 이사장의 지명을 받아 꽃바구니를 전달받았으며, 이 캠페인이 부산에서 더욱 확대되어 차가워진 지역경제에 온기를 더하고자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금융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문성유 사장에게도 동참을 요청했다.(기사시점, 4월 27일 [해인](#))